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145
----------	-------

발의연월일 : 2021. 5. 17.

발 의 자 : 임오경 · 이상현 · 유정주
김민철 · 박 정 · 이수진
박홍근 · 전용기 · 장철민
박성준 · 김성주 · 이규민
박상혁 · 오영환 · 서영교
한준호 · 최혜영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박물관 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모든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취득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박물관·미술관

전시·관람 측면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①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에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p><u>제9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①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에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u></p> <p><u>②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